

## 법무매거진



# 전국법원장, ‘사법행정제도 개선’ 등 현안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제도 등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6일 서초동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각급 법원 법원장 등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을 논의해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개최된다.

법원장들은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로부터 △2020년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및 법관감축 방안을 포함한 현안 △통·번역인 인증제도 추진 성과 △판결서 공개 시스템 개선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추진경과 △상고제도 개선방안 △조정전담변호사 및 지역조정센터 활성화 △면접교섭센터 추가 설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 △2019년도 정기인사 관련 주요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오후에는 △전국법원장회의의 운영 개선 방안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개선 방안 △법관사무분담의 절차 및 기준 개선 방안 △소송대리인 등의 청사 출입 시 검색 방법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민이 바라는 ‘재판 잘하는 법원’을 이루기 위해 재판 지원 중심의 사법행정과 좋은 재판의 실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자”며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그리고 올해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제 기능을 다해 사법행정의 수평적 의사결정과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원장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법관평가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평가와 재판질차의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출처/법률신문)